

		<h1>보도자료</h1>		 당신과 함께 생명을 지킵니다 <small>국민생명지킴이추진단</small>
		배포일시	2019. 12. 13.(금) / 총 3매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	담 당 자	•과장 윤영중, 사무관 김태운, 주무관 홍성욱 •☎ (044) 201-3863, 3864	
	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	담 당 자	•과장 김재흠, 사무관 권순관, 주무관 황연규 •☎ (044) 205-4219, 4220	
	경찰청 교통안전과	담 당 자	•과장 박종천, 경정 호욱진, 경감 정현호 •☎ (02) 3150-2552, 0637	
보 도 일 시		2019년 12월 1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방송·통신·인터넷은 12.15.(일) 09:00 이후 보도 가능		

연말까지 정부합동 교통안전 특별대책 집중 추진

- 관계기관과 협업, 교통안전 캠페인 및 단속 강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, 경찰청(청장 민갑룡)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'교통안전 특별기간'으로 설정하여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.

○ 이를 위해 관계기관*별 교통안전대책의 실적 및 12월 중점대책을 점검하는 회의(12.11)를 갖고,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국토부, 국조실, 행안부, 교육부, 경찰청, 교통안전공단, 도로교통공단, 도로공사, 손해보험협회, 버스·택시·화물차·렌터카연합회 등

□ 우선,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, 보행자, 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.

○ 각 지역별로 구성·운영 중인 교통안전 협의체*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다.

* 지자체, 국토관리청·국토관리사무소, 지방경찰청·경찰서, 교육청·교육지원청, 도로교통공단, 교통안전공단, 시민단체 등

- 특히, 연말을 맞이하여 서울 종로, 강남 등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“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*(12.20)”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,

* (일시/장소) ‘19.12.20(금) 17:00~18:00 / 서울 보신각 입구, (참여기관) 국토부, 국조실, 행안부, 경찰청, 교통안전공단, 시민단체 등, (주요 내용) 시민참여행사(교통안전공연, 음주운전 체험차량 시승 등), 음주운전 사고예방 홍보물 상영, 거리캠페인 등

- 장거리·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수단체와 함께 “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”**도 실시하여 자칫 대형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안전을 강화한다.

* ‘18년 교통사고 사망자(3,781명) 중 야간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23명(8.5%)

** (일시/장소) ‘19.12.18(수) 14:00~16:00 / 기흥휴게소(부산방향), (참여기관) 국토부, 경찰청, 교통안전공단, 화물연합회 등, (주요 내용) 화물차 반사띠 부착 및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

- 음주운전, 이륜차 위험운전 및 화물차 과적 등 고위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.

- 음주운전은 상시단속체제로 돌입하여 유흥가, 식당,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·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.

- 특히,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하여 집중단속한다.

- 또한,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, 20~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.

-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압행단속도 강화하여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,

- 국민들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더 편리하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, 12월 1일부터 '스마트 국민제보'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했다.
-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(25개소)에서 도로관리청·지방경찰서·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.
- 버스·택시·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, 운수단체를 통해 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안전 점검, 졸음운전 방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,
 - 일정기준 이상* 사고를 유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교통수단 안전점검도 추진한다.
- * '19년 1월~11월간 교통사고로 인한 누적 중상자 2명 이상 발생 운수회사(203개사)
-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2.24일까지 지자체, 학교,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,344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.
-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“연말 음주운전 우려가 높고,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”면서,
 - “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와 가족,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”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교통안전복지과 김태운 사무관(☎ 044-201-38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